

# 고등학생의 학습탄력성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정도의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이신숙\*, 강길현\*\*

## The Effects on the Factors of Scholar Resilience for Self-efficacy and Scholar Attainment of High School Student : An Analysis on the Control Effects of Stress Scale

Shin-Sook LEE\*, Gil-Hyun KANG\*\*

### 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습탄력성에 관한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인과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한 다음, G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습탄력성 요인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고등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이 높다는 점에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eywords : 학습탄력성, 자기효능감, 스트레스정도, 학업성취감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factors of studying 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had a control effect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stress. For

• 제1저자 : 이신숙 • 교신저자 : 강길현

• 투고일 : 2014. 7. 22, 심사일 : 2014. 7. 29, 게재확정일 : 2014. 8. 21.

\*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외래교수(Lecturer, Graduate School, of Policy Chosun University)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겸임교수 (Adjunct Professor of Administration and welfare, Chosun University)

this purpose, this study set the cause and effect model and the research hypothesis through literature and then conducted a survey of 292 people of high school students in G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cognition ability and communication skill, which are the factors of studying resilience, had different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stress. It has great significance that if the stress level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s lower,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s are high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how to inspire the academic achievem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 Keywords : studying resilience, self-efficacy, stress level, academic achievement

## I. 서 론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해 가는 과도기에서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발달상의 미성숙으로 자신의 통제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학교는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키는 사회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송인섭[1]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식 습득이나 학습과제 해결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스스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는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2]. 청소년 연구들은 학교에서 성공적인 적응은 학업성취를 넘어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사회·심리적 관계 또는 인간관계와 개인의 배경 원인 등을 고려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3]. 그렇지만 청소년은 과도한 내외적 환경변화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에서 개인의 부적응과 실패, 또는 낮은 사회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학습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변상황에 대한 환경까지도 비롯된다. Block과 Block[4]은 자아탄력성은 내외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성격유형으로 탄력성(resiliency)을 제안하였다. 탄력성을 가진 학생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문제 해결 전략을 가

지고 있고, 학교생활에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이 있는 적응을 하며, 인지적 측면에서도 융능함을 지닌다. 그러나 열악한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에서 틀에 박힌 반응을 나타내고, 경직되어 있으며, 스트레스상황에서 산만하게 행동하고 경쟁 상황에서 매우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Gray[5]는 학교가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두드러진 사회 환경임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탄력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학교에서의 탄력성 연구의 필요성을 입증 하였다. Hernandez[6]도 학습탄력성과 성취동기,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공과 이후의 직업세계까지 긍정적으로 관련되는 복잡한 자질과 능력까지 함께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에게 학습탄력성이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개인발달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습탄력성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습탄력성 요인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탄력성으로 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 요인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청소년이 살아가면서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높은 인지 능력, 긍정적 기질

이나 성격, 긍정적 자아개념 또는 개인의 정상적 발달 결과와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 등을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반면, 부정적인 요인은 청소년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 가정환경, 지역적 유해환경 등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인 고등학생의 학습탄력성 요인을 긍정적인 요인에서 접근하기로 하고, 그 하위 요인을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 등을 가장 유력한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요인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학습탄력성 요인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1.1. 인지능력

인지능력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느낌으로 알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능력으로 보고 정의 하였다. Masten: Masten et al[7][8][9]는 탄력성요인 중 보호요인의 하나로 탄력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지능력은 개인이 자신의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하거나, 경험하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적절한 대처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지능력이 높으면 스트레스를 주는 외적 환경이나 위험한 역경에서도 대처와 적응력이 더 좋아진다[10]

### 1.2.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가족들 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족들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공유하며, 갑작스런 위기나 지속적인 도전을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 하느냐를 의미 한다[11].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간의 공통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방향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의 기능과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청소년비행 연구에 의하면 비행청소년은 부모와 의사소통 형태가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회유형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청소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12]

### 1.3. 교우관계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 중의 하나가 그들의 교우관계라 할 수 있다.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교우관계의 확장이다. 청소년기동안 친구를 사귀고 또래집단의 일원이 되어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것은 독립적이며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우관계의 중요한 특성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래집단은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심리적, 사

회적으로, 학업에서 그 성취도가 높아 긍정적인 자존감과 가치감을 갖게 되며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고독감을 덜 느낀다고 밝혔다[13]. 반면,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적이거나 적절한 관계형성 능력이 결여되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고 심지어 비행이나 정신질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14]

## 1.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정서적 삶의 질에 행복감을 줄 수 있다. 김순오[15]는 사회적 지지를 사회 체계 속에서 개인의 활동에 수반되는 스트레스를 정서적,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속성으로 보았으며, 여기에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라고 제시하였다. 정순돌[16]은 사회적 지지를 가족, 친구, 친척, 동료 또는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체계이자 이들 체계들이 제공하는 도움이라고 정의했다. Vaux[17]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망의 자원과 지지적 행동, 지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House[18]는 사회적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했고, Katz와 McClellan[19]는 사회적 지지를 넓은 의미에서 공식적 지지와 비공식적 지지로 분류하고, 이러한 지지는 애정, 확산, 보조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는 인간관계의 교류로 보았다.

##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한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학업성취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고등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고등학생 대상 예방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행위의 선택이나 지속행위의 재개 등 모든 부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동의 사고 능력이나 불안 등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을 주므로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적인 업무수행이 방해 받는다. 즉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자기효능감이 약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효능감의 강도에 따라 역할 수행을 잘하기도 하고 뒤쳐지기도 한다[21]. 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로 되는 행위를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

로 자신의 행위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이다[20].

### 3. 학업성취감

학습적응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을 가정 하였다. 그 결과는 학업성취감이 부진하면 비행행동을 하게 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며 교육적 목표에 대한 관여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을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아져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행으로 연결되는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습적응은 학습에 대하여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수업의 내용에 대한 즐거움과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흥미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가정 하였다.

### 4. 스트레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새로운 성장과 발달에 따른 결과로써 긴장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들을 배울 때에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 황영숙[21]은 생활사건에서 생겨나는 압박감으로 적정수준까지는 생활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서 생활 할 때는 효율성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생활 속의 사건과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평가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예측 할 수 없는 상황, 익숙하지 않은 상황,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회피할 수 없는 상황, 필연적인 상황이 그 예이다[22]. 스트레스는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23][24]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성격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25]. 발달과정상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등의 자아 정체감을 찾아야한다[26].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압력, 요구와 적응력과 독립, 책임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빠른 사회변화와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성적, 이성관계, 표면화된 대인관계,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의 적응적 요구를 겪기 때문이다[27].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를 친구와 교사 및 부모에게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성 발달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우관계는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보다는 비슷한 연령의 또래와 관계를 통해 많은 영향

을 받으며 교사보다는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28].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탄력성 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고등학생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로서 학습탄력성요인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 조절변수는 스트레스 정도, 종속변수는 학업성취감으로 보았다. 이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고, 가설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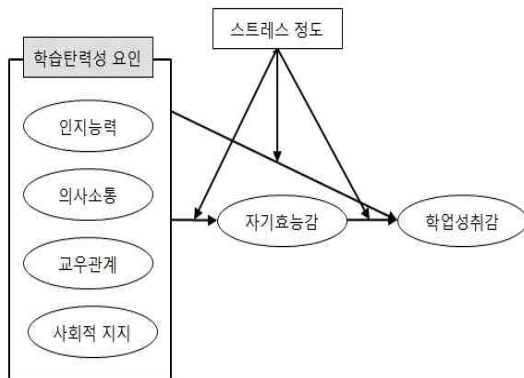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내 용
가설 1	학습탄력성 요인인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학습탄력성 요인인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학습탄력성 요인인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학습탄력성 요인인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가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6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문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첫째, 인지 능력은 신중한 생각, 해결능력, 이해능력 등 5문항, 의사소통은 부모와 대화, 가족격려, 가족문제 해결, 부모와의 솔직한 대화 등 7문항, 교우관계는 괴롭힘, 놀림, 물건 등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 등 4문항, 사회적 지지는 친구 간의 도움, 걱정과 칭찬, 용기, 관심과 배려 등 4문항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 등 6문항이다. 셋째, 학업성취감은 수업의 즐거움, 좋은 성적, 수업시간에 흥미 등 5문항으로 평균값이 클수록 학업성취감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넷째, 스트레스 정도는 고등학생 또래와의 관계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로서 친구의 따돌림, 무시, 어울리지 못한 것,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가르치는 방법과 혼 낸 적이 있는 것, 부모님이 학업성적을 가지고 형제나 친척과 비교, 공부강요, 성적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 등 10문항으로 평균값이 클수록 스트레스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IV. 실증분석

1. 표본선정 및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의 남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답변이 미흡한 28부를 제외하고 292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인 AMOS 16.0버전을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Table 2. Demographics

변수		빈도 (명)	비율 (%)	누적 (%)
성적	60점이하	128	43.8	44.0
	61점이상-70점이하	67	22.9	67.0
	71점이상-80점이하	47	16.1	83.2
	81점이상-90점이하	36	12.3	95.5
	91점이상	14	4.7	100
	계	292	100	

응답	2만원 미만	59	20.2	20.3
	2만원이상-4만원미만	126	43.2	63.8
	4만원 이상-6만원미만	64	21.9	85.9
	6만원 이상-8만원 미만	17	5.8	91.7
	8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1	3.8	95.5
	10만원 이상	13	4.5	100
	결측값	2	.7	
계	292	100		
종교	불교	36	12.3	12.3
	기독교	80	27.4	39.7
	천주교	21	7.2	46.9
	기타	5	1.7	48.6
	없음	150	51.4	100
	계	292	100	

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는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3> 및 <표 4>와 같이 요인분석의 적재값을 나타냈다. 요인분석은 문항들을 데이터 축소(Data Reduction)하여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감, 스트레스 정도 등 7개의 요인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는 .857이고, 카이제곱값( $\chi^2$ ) 2411.280, 자유도(df) 190, 유의확률(sig.)은 .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측정도구 검증은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독립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3. Confirmatory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 인지 능력	v1	.739	.056	.175	.016
	v2	.701	.047	.105	.274
	v3	.782	.240	.259	.031
	v4	.736	.124	.242	.032
	v5	.681	.024	.013	.109
2. 의사 소통	v6	.127	.727	.028	.024
	v7	.142	.818	.115	.015
	v8	.133	.802	.026	.217
	v9	.122	.789	.012	.223
	v10	.022	.723	.025	.202
	v11	.120	.777	.129	.048
3. 교우	v12	.052	.671	.017	.054
	v13	.124	.102	.663	.007
	v14	.154	.113	.690	-.142

관계	v15	.142	.131	<b>.722</b>	.076
	v16	.126	.142	<b>.774</b>	-.053
4. 사회적 지지	v17	.240	.154	.063	<b>.774</b>
	v18	.126	.063	-.173	<b>.803</b>
	v19	.226	.127	.157	<b>.807</b>
	v20	.198	.120	-.026	<b>.751</b>
<b>eigen value</b>		<b>2.803</b>	<b>4.038</b>	<b>2.283</b>	<b>2.979</b>
<b>분산비율(%)</b>		<b>14.016</b>	<b>21.190</b>	<b>11.414</b>	<b>14.897</b>
<b>누적비율(%)</b>		<b>14.016</b>	<b>35.250</b>	<b>46.664</b>	<b>61.561</b>
<b>KMO and Bartlett's Test</b>		<b>KMO: .857, <math>\chi^2</math>: 2411.280, df: 190, sig.: .000</b>			
<b>신뢰도 분석 (Cronbach <math>\alpha</math>)</b>		<b>.790</b>	<b>.873</b>	<b>.734</b>	<b>.846</b>

둘째,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 KMO(Kaiser-Meyer-Olkin)는 .821이고, 카이제곱값 ( $\chi^2$ ) 2728.540, 자유도(df) 210, 유의확률(sig.)은 .000으로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1개의 요인에 대해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표 4. 종속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Table 4. Confirmatory analysi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1. 자기효능감	v1	<b>.752</b>	.156	.105
	v2	<b>.714</b>	.124	.155
	v3	<b>.749</b>	.057	.059
	v4	<b>.782</b>	.140	.042
	v5	<b>.767</b>	.124	.113
	v6	<b>.711</b>	.034	.128
2. 학습성취감	v7	.122	<b>.729</b>	.155
	v8	.133	<b>.625</b>	.026
	v9	.120	<b>.703</b>	.012
	v10	.057	<b>.792</b>	.055
	v11	.180	<b>.689</b>	.077
3. 스트레스	v12	.012	.069	<b>.890</b>
	v13	.124	.163	<b>.858</b>
	v14	.158	.135	<b>.893</b>
	v15	.029	.122	<b>.810</b>
	v16	.046	.158	<b>.762</b>
	v17	.120	.053	<b>.779</b>
	v18	.026	.107	<b>.757</b>
	v19	.056	.120	<b>.821</b>
	v20	.068	.214	<b>.790</b>
	v21	.263	.145	<b>.847</b>
	<b>eigen value</b>		<b>3.680</b>	<b>2.761</b>
<b>분산비율(%)</b>		<b>17.525</b>	<b>13.147</b>	<b>25.378</b>
<b>누적비율(%)</b>		<b>17.525</b>	<b>30.672</b>	<b>56.050</b>
<b>KMO and Bartlett's Test</b>		<b>KMO: .821, <math>\chi^2</math>: 2728.540,</b>		

	<b>df: 210, sig.: .000</b>		
<b>신뢰도 분석 (Cronbach <math>\alpha</math>)</b>	<b>.863</b>	<b>.790</b>	<b>.753</b>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종속변수인 학습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학습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먼저 카이제곱 값은 766.627, 자유도(df)는 419,  $\chi^2$ 에 대한 p 값은 .000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지수로 기초적합지수(GFI), 표준적합지수(NFI), 증대적합지수(IFI), TLI, 비교적합지수(CFI)와 간명적합지수(AGFI) 등이 모두 1에 가까우며, RMR(원소간평균차이)값이 .044로 0.05보다 작게 나타났다. RMSEA(근차평균계급차이) 값은 .053으로 기준치인 .08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5. Fitness Index of Research Model

구분	절대적합지수				
	$\chi^2$ (p)	df	GFI	RMR	RMSEA
적합 지수	766.627 (.000)	419	.903	.044	.053
최적 기준	p < .05	-	.90 이상	.05 이하	.08이하
구분	증분적합지수				
	NFI	IFI	RFI	TLI	CFI
적합 지수	.900	.911	.896	.906	.910
최적 기준	.90이상				
					.90이상

4. 가설 검증

고등학생 학습탄력성 요인으로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학습성취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1. "고등학생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인지능력(표준화계수 .512, C.R. 값 6.266)과 의사소통(표준화계수 213, C.R. 값 3.466) 및 교우관계(표준화계수 .191, C.R. 값 2.067)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표준화계수 .083,

C.R. 값 .845)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등의 인지능력, 가족과의 의사소통,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는 생활에 자신감을 주며,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니게 하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 “고등학생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의사소통(표준화계수 .308, C.R. 값 4.148)은 학업성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능력(표준화계수 .149, C.R. 값 1.689)과 교우관계(표준화계수 .008, C.R. 값 .939) 및 사회적 지지(표준화계수 .063, C.R. 값 .505)는 학업성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학교수업이 즐거움, 수업의 흥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등과 같은 학업성취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설검증 결과  
Table 6.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가 설	표준화 계수	C.R. (t)	p	지지 여부	
가설 1	1) 인지능력 → 자기효능감				
	2) 의사소통 → 자기효능감	.512	6.266	.000**	지지
	3) 교우관계 → 자기효능감	.213	3.466	.000**	지지
	4) 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	.191	2.067	.039*	지지
가설 2	1) 인지능력 → 학업성취감				
	2) 의사소통 → 학업성취감	.075	.845	.398	기각
	3) 교우관계 → 학업성취감	.149	1.689	.091	기각
	4) 사회적지지 → 학업성취감	.308	4.148	.000**	지지
가설 3	1) 자기효능감 → 학업성취감	.008	.077	.939	기각
	2) 의사소통 → 학업성취감	.063	.667	.505	기각
	3) 교우관계 → 학업성취감	.303	3.096	.002**	지지
	4) 사회적지지 → 학업성취감				

\* : p ≤ 0.05, \*\* : p ≤ 0.01

연구가설 3.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감(표준화계수 .303, C.R. 값 3.096)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니게 하는 자기효능감은 학교수업의 즐거움, 수업의 흥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등과 같은 학업성취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표 6>과 같다.

고등학생 학습탄력성 요인으로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조절효과 검증 결과  
Table 7. Summary of Findings in Moderating Effects

가 설	경로계수		p		차이 여부	
	낮음	높음	낮음	높음		
가설 4	1) 인지능력 → 자기효능감	.659	.417	.000	.000	있음
	2) 의사소통 → 자기효능감	.239	.201	.008	.041	있음
	3) 교우관계 → 자기효능감	.140	.228	.239	.181	없음
	4) 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	.058	.042	.651	.779	없음
가설 5	1) 인지능력 → 학업성취감	.455	.017	.016	.869	있음
	2) 의사소통 → 학업성취감	.360	.353	.003	.002	있음
	3) 교우관계 → 학업성취감	.048	.044	.719	.797	없음
	4) 사회적지지 → 학업성취감	.109	.173	.440	.253	없음
가설 6	1) 자기효능감 → 학업성취감	.398	.030	.001	.866	있음

\* : p ≤ 0.05, \*\* : p ≤ 0.01

조절효과 검증결과이다. 연구가설 4. ‘고등학생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인지능력(경로계수 낮음 .659, 높음 .417)과 의사소통(경로계수 낮음 .239, 높음 .201)은 자기효능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등의 인지능력,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생활에 자신감을 주며,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니게 하는 자기효능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고등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경로계수 낮음 .140, 높음 .228)와 사회적 지지(경로계수 낮음 .058, 높음 .042)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5. '고등학생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인지능력(경로계수 낮음 .455, 높음 .017)과 의사소통(경로계수 낮음 .360, 높음 .353)은 학업성취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등의 인지능력, 가족과의 의사소통은 학교수업의 즐거움, 수업의 흥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등 학업성취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고등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감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우관계(경로계수 낮음 .048, 높음 .044)와 사회적 지지(경로계수 낮음 .109, 높음 .173)는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6.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자기효능감(경로계수 낮음 .398, 높음 .030)은 학업성취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에 자신감을 주며,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니게 하는 자기효능감은 학교수업의 즐거움, 수업의 흥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등 학업성취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고등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감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V. 분석결과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학습탄력성요인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합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및 교우관계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능력과 교우관계 및 사회적 지지는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소통은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및 교우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여도 그 일을 성취해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사소통과 학업성취감은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통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목표를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확신의 자기효능감은 학교 수업의 즐거움, 수업의 흥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등과 같은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우관계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트레스 정도가 낮으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이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성적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가족 간의 많은 의사소통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교우관계 개선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강화 등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추출은 G광역시 고등학생 남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측정변수는 학습탄력성 요인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교우관계, 사회적 지지가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요인이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과 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설문은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양적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질적연구와 병행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또한 타 지역과 해당지역 간의 횡단적 연구와 일정기간의 종단적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즉,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환경에 따른 고등학생의 학습탄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스트레스는 자신의 인지능력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지적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은 모두가 성적 제일주의에서 벗어난 전인 교육체계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Song In-Seob, Self motivated study for field applications, hakjisa, 2007
- [2] Kim Nu-Ri,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 [3] Moon Ehun-Shik,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behaviors". Graduated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1
- [4] Block, J. H., & Block, "J The role of ego-contra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Ed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1980
- [5] Gray, J. P. "The relatios of teacher education, student' resiliency, work, motivation, and school-level resili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uston. 2001
- [6] Hernandez, L. P." The role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1983
- [7] Masten, A. S., & Coatsworth, J. 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2), 205-220, 1998
- [8] Masten, A. S., Coaswoth, J. D., Neeman, J., Gest, S. D., Tellegen, A., & Garmezy, N., "The structure and coherence of competenc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635-1659, 1996
- [9]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1999
- [10] Do Nam-Hee,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youth-headed family : social compet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i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9
- [11] Walsh, F.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98
- [12] Kim yoon hee. "Construction of A Model of Internet-Addicted Adolescents' Mental Health". the Graduate School Jung- Ang University.2006
- [13] McGuire, K. D., & Weisz, J. R,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Vol. 53, 1478-1484. 1982
- [14] Moon Hyung Choon, "The human relationship and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 Seoul youth counseling center. 1(1). 41-50, 1999
- [15] Kim sun o, "A Study of Self-Efficacy, Social Support,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 for Middle Aged Men ". Department of Nursing, Dongnam Health College. 18(2), 177-186, 2000
- [16] Jeong Sun Dol. "Characteristics of al Support Network for the Low Income Elderly People: Analysis of Dyadic Relationship ".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4, 7-29. 2004
- [17] Vaux, A. "Social suppor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Praeger, New York. 1988
- [18] House, J.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1981
- [19] Katz, L. G., & MacClellan, D. E.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1997
- [20] Bandura, 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 [21] Hwang Ydng Suk.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elf-concept, and academic stress on Elema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Han Yang University.1997
- [22] Wilkinson, Greg. "Understanding stress". British Medical Association Family doctor series Vol. 013. 2005
- [23] Woo so-Yeon.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The Graduate School Yeosei University. 2008
- [24] DuBois, D. L.,Felner, R. D., Mears H., & Krier, M.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ce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gr. 103(3), 511-522. 1994
- [25] Jeong Ok Bun, "adolescents development", HakJisa, 1998
- [26] Cohen, S., & Hobermanl, A.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1983
- [27] Kang Yong Ja, "A Comparative Study of Average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 about the Life Stressors and Coping. The graduate school Sangmyung Woment's University, 1996
- [28] park young sin. etc , "Causes and Consequences of Life - satisfaction among Primary , Junior High ,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94-118, 2000.

## 저 자 소 개



**이 신 숙**  
2013: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외래교수  
관심분야: 아동학,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e-mail: ss1114@hanmail.net



**강길현**  
2013: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겸임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자립시설 운영  
e-mail : opswa@hanmail.net